Session 2 The Glory of God Expressed in Trinitarian Love  
 제2강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

1. The Trinity: one God in Three Persons  
   삼위일체: 세 인격 안의 한 하나님
   1. The reality of the Trinit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octrines in the Bible. Over 70 passages in the New Testament present the Father, Son, and Spirit in deep relationship together. Today, this truth is under attack as many are seeking to blend all the religions of the world into one faith.   
      It is impossible to blend other religions with the Trinity. Monotheistic religions (Islam and Judaism) are especially opposed to it. We must be equipped to defend this doctrine when sharing our faith and must understand some of the truths related to it in order to engage in Trinitarian conversation.   
      삼위일체의 실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들 중의 하나이다. 신약에서 70개가 넘는 구절에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깊은 교제를 보여준다. 오늘날 이 진리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의 신앙으로 혼합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에 다른 종교를 혼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슬림이나 유대교와 같은 일신교는 특히 이것에 반대한다. 우리가 신앙을 나눌 때,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만 한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리들을 이해해야만 한다.
   2. ***Review***: I see 5 parts of the “intimacy process” with God—they overlap and flow together, yet   
      it begins with *knowing* the truth mentally (Jn. 8:32). The 5 parts are *knowledge*, *conversation*, *illumination*, *inspiration*, and then *transformation* which is satisfying, pleasurable, and unifying.   
      **복습:**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과정”을 다섯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것들은 중복되기도하고 함께 흘러도 가지만 진리를 정신적으로 **아는 것**(요 8:32)에서 시작한다. 다섯 부분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대화하는 것, 빛의 계시를 받는 것, 영감을 받고, 변화 되는 과정**이다. 이것은 깊이 만족되며 즐겁고 하나되는 것이다.
   3. The doctrine of the Trinity teaches that God exists as ***three Persons***—Father, Son, and Spirit.   
      Each distinct Person is fully and eternally God, yet there is ***only one God.*** The mystery of the Trinity is that three divine Persons dwell together forever in deep relationship as one God.   
      All three Persons are coeternal, together, and equal. Jesus is equal to the Father, as touching   
      His deity, yet inferior to the Father as touching His humanity.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 세 분(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가르친다. 각각의 고유한 인격은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의 비밀은 이 세 분(세 위격)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서 깊은 관계로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 분(세 위격)은 서로 영원히 함께 동등 하시다. 예수님의 신성을 만질 때,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 하지만, 그분의 인성을 만질 때에는 아버지보다 열등하시다.
   4. The word *“Trinity”* is not in the Bible, but its truth is. *Trinity* means “tri-unity” or “three-in-one.”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이것은 진리이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세 분의 연합” 또는 “세분이 하나이다” 라는 의미이다.
   5. Two men who helped to establish the doctrine of the Trinity were ***Athanasius*** (AD 293-373), Bishop of Alexandria, who suffered great resistance and persecution in defending the doctrines   
      of the Trinity against Arian attacks, and ***Augustine*** (AD 354-430), Bishop of Hippo, in present-day Algeria, whose teaching on the Trinity is the most influential in history.   
      삼위일체의 교리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두 사람은 **아타나시우스** 와 **어거스틴**이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타나시우스** (주후 293-373)는 아리안의 공격 (그리스도의 신성 거부) 에 대항하여 삼위일체를 옹호함으로써 큰 저항과 핍박을 당했다. 오늘날의 알제리인 히포 지역의 주교였던 **어거스틴** (주후 354-430)의 삼위 일체의 가르침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다.
   6. ***The Athanasian Creed*** (about AD 500) is the clearest [statement of faith](http://en.wikipedia.org/wiki/Creed) about the Trinity.   
      The Apostles’, Nicene, and Athanasian creeds are three of the main creeds of the Church.   
      The Athanasian Creed teaches that each Person of the Godhead is uncreated, limitless, eternal,   
      and almighty (omnipotent); all three Persons are coeternal and equal.   
      **아타나시안 신조** (주후 500년 경)는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분명한 신앙의 진술이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그리고 아타나시안 신조는 세 가지 교회의 주요 신조들이다. 아타나시안 신조는 신격의 각 인격은 창조되지 않았으며, 무한하고, 영원하며 그리고 전능하시다고 가르친다. 세 인격 모두는 영원히 공존하며 동등하시다.
   7. ***The Arian heresy****:* Arius, Presbyter of Alexandria, taught that Jesus was created by the Father and therefore was not God. The Council of Nicea (AD 325) declared this a heresy. Today, many speak of Jesus as a great prophet, who is empowered by God, but who is not the eternal God.  
      **아리안 이단:**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니케아 공의회 (주후325)는 이를 이단이라고 공포하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 능력을 받은 한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한다.
   8. **Tozer** wrote: *“Our sincerest effort to grasp the incomprehensible mystery of the Trinity must remain forever futile...Some persons who reject all they cannot explain have denied that God is a Trinity. Subjecting the Most High to their cold, level-eyed scrutiny, they conclude that it is impossible that He could be both One and Three. These forget that Their whole life is enshrouded in mystery. They fail to consider that any real explanation of the simplest phenomenon in nature lies hidden in obscurity and can no more be explained than can the mystery of the Godhead.***토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삼위일체를 이해해보려는 우리의 가장 진지한 노력은 영원히 헛되이 남아 있어야한다…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심을 부인했다. 그들은 차갑고 꼼꼼하게 지극히 높으신 분을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분되심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그들의 삶 전체가 신비에 싸여 있다는 것을 잊는 것이다. 그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단순한 현상에 대한 실재적 설명이 모호함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숙고함에 실패했고 그래서 그들은 신격의 신비는 더 설명될 수 없다고 한다.”
   9. **Anselm** said*, “Let me seek Thee in longing…let me find Thee in love, and love Thee in finding.”***안셀름**은 “나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나로 사랑으로 당신을 발견케 하시고 발견하는 가운데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하소서” 라고 말했다.
2. indications of the Trinity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
   1. Indications of the Trinity can be seen in the Old Testament. The first time God speaks in Scripture (as well as at other times), He uses the plural—Us and Our (Gen. 1:26; 3:22; 11:7; Isa. 6:8).   
      구약에서도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가 있다. 처음으로(다른 구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라는 (창1:26; 3:22; 11:7; 사 6:8) 복수 형태로 적혀 있다.

26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Gen.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 1. In several places in the Old Testament, God addresses God (Ps. 2:7-12; 45:6-7; 110:1; Isa. 6:8). Two distinct Persons are in view. In Psalm 45:6, the Father speaks to Jesus (quoted in Heb. 1:8).  
     구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언급하신다 (시 2:7-12; 45:6-7; 110:1; 사 6:8). 구별되는 두명의 인격을 볼 수 있다. 시편 45:6절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다 (히 1:8절이 인용됨).

6“Your throne, O God, is forever…7You love righteousness…therefore God, Your God, has anointed You with the oil of gladness more than Your companions.” (Ps. 45:6-7)   
6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7왕이 정의를 사랑하고…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시45:6-7)

* 1. Jesus asked the Pharisees four questions to help them understand that He was the God-Man.   
     In Psalm 110:1, David wrote, “The Lord says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Jesus pointed out that David referred to the son of David as David’s Lord, meaning David considered Him to be God as well. Psalm 110 highlights the fact of plurality and humanity within the fellowship of the Godhead.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 되심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네 가지 질문을 하셨다. 시편 110: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라고 적었다. 예수님은 다윗이 다윗의 자손을 다윗의 주로 언급했음을 주목케 하셨다. 이것은 다윗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간주하였음을 의미한다. 시편 110편은 신격의 교제 안에 복수성(plurality)과 인성의 사실을 강조한다.

42“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rist? Whose Son is He?” They said to Him, “The Son of David.” 43He said to them, “How then does David in the Spirit call Him ‘Lord,’ saying:   
44‘The Lord [Go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till I make Your enemies Your footstool”’? 45If David then calls Him ‘Lord [God],’ how is He his Son?” (Mt. 22:42-45)  
42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44주[하나님]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45다윗이 그리스도를 주[하나님]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22:42-45)

1. Revelation of the Trinity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서의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
   1. There are several scriptural examples of all three Persons of the Godhead active or speaking at one event. Examples include Jesus’ baptism, when the Spirit rested on Him and the Father spoke over Him (Mt. 3:16-17); and Jesus commissioning His disciples t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t. 28:19).   
      신격의 세 분 모두가 한 사건에 활동하시거나 말씀하심을 보여주는 성경적 예가 몇 가지 있다. 예로,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님이 예수님께 내려오셨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 3:16-17)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 28:19)고 명하여 보내셨다.
   2.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s established on the ***deity of Jesus*** and the ***plurality of the Godhead****.*Today, these are both great stumbling blocks and sources of conflict. However, these truths are essential to Christianity and will be resisted in an increasing way as we approach Jesus’ return.   
      삼위일체의 교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신격의 복수성** 위에 세워졌다. 오늘날, 이 두 진리는 큰 걸림돌이며 갈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진리는 기독교의 필수적 진리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 진리에 대한 저항은 더 증가될 것이다.

30“I and My Father are one.” 31Then the Jews took up stones again to stone Him…33The Jews answered Him, “…For blasphemy, and because You…make Yourself God.” (Jn. 10:30-33)   
30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31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33유대인들이 대답하되 …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 10:30-33)

18The Jews sought all the more to kill Him because He…said that God was His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Jn. 5: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 5:18)

* 1. Jesus now has two natures; He is fully God and fully man. Ian Thomas said, *“Though Jesus was never less than God, He lived on earth as though He was never more than a man.”*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가지신다. 그것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이다. 이안 토마스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보다 부족하지 않으셨으나, 그렇다고 땅에서 사람이상으로써 결코 살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2. Jesus’ deity is established in the New Testament (Mt. 1:23; 3:3 [Isa. 40:3]; 18:20; 22:44 [Ps. 110:1]; 26:64-65 [Dan. 7:13-14]; 28:20; Mk. 1:1; Lk. 1:35; Jn. 1:1-3, 14, 18; 4:26; 5:18; 8:58; 10:30-33; 14:9; 20:28; Rom. 9:5; 2 Cor. 4:4-6; Phil. 2:6-11; Col. 1:15-19; 2:9; 1 Tim. 3:16; Titus 2:13; Heb. 1:2-3, 8-12; 2 Pet. 1:1; 1 Jn. 2:23; 4:15; Rev. 5:12-13; 19:16; 21:6; 22:13).  
     예수님의 신성은 신약에서 세워졌다 (마 1:23; 3:3 [사 40:3]; 18:20; 22:44 [시 110:1]; 26:64-65 [단 7:13-14]; 28:20; 막 1:1; Lk. 1:35; 요 1:1-3, 14, 18; 4:26; 5:18; 8:58; 10:30-33; 14:9; 20:28; 롬 9:5; 고후 4:4-6; 빌 2:6-11; 골 1:15-19; 2:9; 딤전 3:16; 딛 2:13; 히 1:2-3, 8-12; 벧후 1:1; 요일 2:23; 4:15; 계 5:12-13; 19:16; 21:6; 22:13).

1. seven truths about the Trinity   
   삼위일체에 대한 일곱가지 진리들
   1. Seven important truths related to the Trinity:  
      삼위일체에 관계된 일곱가지 중요한 진리들
      1. There is only one God.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2. God forever dwells in three distinct Persons who are coequal as divine Persons.   
         하나님은 신성한 인격들로써 세개의 구별되는 인격들로 동등하게 영원히 공존하신다.
      3. Each Person fully possesses all God’s attributes—infinite in measure and eternal in duration.  
         각 인격은 측량에 무한하며 기한에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온전히 가지신다.
      4. Each Person enjoys Their eternal, voluntary, mutual relationship of love, humility, and unity.  
         각 인격은 영원하시고 자발적이시며 사랑, 겸손, 연합의 상호관계를 즐기신다.
      5. Each Person is different in function and authority in their relationship and work.  
         각 인격은 그분들의 관계와 일하심에 있어서 역할과 권세가 다르다.
      6. Each Person’s work is unified, inseparable, and interdependent with the others’ work.   
         각 인격의 일하심은 연합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으며, 그분들의 역사하심에 상호의존적이시다.
      7. Each Person mutually dwells in the other two Persons.  
         각 인격은 다른 두 분들 안에 상호 거주하신다.
   2. ***Summary****:* One God exists forever as three distinct Persons, equal in nature as God and enjoying a deep relationship of love with each other, fully possessing the divine nature, yet differing in function and authority in their relationship and work together, while dwelling in each other.   
      **요약:**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동등한 본성을 가지시며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의 깊은 관계를 즐기시며, 온전하게 신성을 소유하시지만, 서로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들의 관계 안에서 기능과 권세는 다르며, 함께 일하신다.
   3. ***#1. There is only one God.***   
      #1**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  
      God is only one being. In His essence, He is one—His essential nature is one (Deut. 6:4; Isa. 45:5-6, 21-22; 44:6-8). The apostles taught that there is one God (Rom. 3:30; 1 Cor. 8:6; 1 Tim. 2:5).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시다. 그분의 본질에서 그분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적 본성은 하나이다 (신 6:4; 사 45:5-6, 21-22; 44:6-8). 사도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가르쳤다 (롬 3:30; 고전 8:6; 딤전 2:5).

19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You do well. (Jas.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약 2:19)

* 1. ***#2. God forever dwells in three distinct Persons who are coequal as divine Persons.***   
     **#2하나님은 신성한 인격들로써 세 구별되는 인격으로 동등하게 영원히 공존하신다.**  
     How God with one undivided being can dwell in three Persons is beyond our full understanding. There is one Person of the Father, another of the Son, and another of the Spirit. Each possesses   
     a mind, emotions, and will (or divine intelligence, emotions such as desire, love, and joy, etc.).   
     하나의 분리되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 인격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이해를 넘어선다. 이는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님의 인격이시다. 각 인격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혹은 신성의 지능, 갈망, 사랑 그리고 기쁨 등과 같은 감정들)를 가지신다.
     1. ***Coequal****:* The Father, Son, and Spirit are coequal in a unity of one substance or essence as God without any inequalities. There are three Persons, yet not three gods, but *one* God.   
        **동등성**: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불평등없이 한 본질의 연합 안에 동등하시다. 세 인격이시지만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다.
     2. ***Distinctions****:* Distinctions exist among them that are based upon their unique relationship to each other. The Father relates uniquely as a father to the Son and the Spirit. The Son relates uniquely as a son to the Father. The Spirit relates uniquely to release the works of the Father and Son to the earth and to apply the benefits of salvation to the believer.   
        **구별됨**: 서로와의 독특한 관계에 기초하여 그분들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과 성령님에게 독특하게 관련하신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독특하게 관계하신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일들을 지상에 풀어 놓으시며 믿는 자에게 구원의 유익을 적용하시며 독특하게 관계 하신다.
     3. ***Forever****:*For all eternity, the Father has functioned as the Father, and the Son as the Son, and the Spirit as the Spirit. God is unchangeable (Mal. 3:6; Jas. 1:17). Therefore, these distinctions are eternal and not something that began at creation or redemption. Jesus was already the Son when the Father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Son (Jn. 3:16).   
        **영원성**: 영원토록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성령님은 성령님으로서 일하여 오셨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말 3:6; 약 1:17). 그러므로, 이런 구별은 영원한 것이며, 창조나 구속 때에 시작된 어떤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들이셨고,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요3:16).
  2. ***#3.*** ***Each Person fully possesses all God’s attributes—infinite in measure and eternal duration.*#3 각 인격은 측량에 무한하며 기한에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온전히 가지신다.**  
     Each Person possesses all God’s attributes (love, wisdom, power, etc.) in fullness. They possess them in an infinite measure and in eternal duration. Thus, they never increase or diminish.   
     각 인격 모두 하나님의 성품 (사랑, 지혜, 능력 등)을 충만하게 소유하신다. 그분들은 측량에 무한하며 기한에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가지신다. 그럼으로 하나님의 속성들은 결코 증가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3. ***#4. Each Person enjoys an eternal, voluntary, mutual relationship of love, humility, and unity***.   
     **#4 각 인격은 영원하시고 자발적이시며 사랑, 겸손, 연합의 상호관계를 즐거워 하신다.**  
       
     They have a deeply satisfying and fulfilling relationship in the fellowship of the Godhead. Imagine how enjoyable fellowship in the Trinity is and how we will enjoy it.  
     그분들은 신격의 교제에서 깊이 만족되며 충만한 관계를 가지신다. 삼위일체의 교제가 얼마나 즐거울지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그 교제를 즐거워 하게 될 지 상상해 보라.
     1. ***Love****:* The Son loves the Father, and the Father loves the Son (Jn. 3:35; 5:20; 14:31).   
        **사랑**: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요 3:35; 5:20; 14:31).
     2. ***Humility***: They deeply delight in using their authority to serve and honor each other freely (Jn. 5:23; 8:49-54; 12:26; 13:31-32; 14:12; 17:1, 4-5, 22, 24).   
        **겸손**: 그분들은 서로를 섬기고 자유로이 존중하시는데 자신의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깊이 기뻐하신다 (요 5:23; 8:49-54; 12:26; 13:31-32; 14:12; 17:1, 4-5, 22, 24).
     3. ***Intimate****:* They know each other in a deep and personal way (Mt. 11:27; 1 Cor. 2:10).   
        **친밀함**: 그분들은 깊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아신다 (마 11:27; 고전 2:10).
     4. ***Voluntary****:* God relates in unity by free choice and by nature. Each Person eternally chooses to be Himself in relation to the others. Each one acts by nature in relationship.   
        **자발성**: 하나님은 자유선택으로 자신의 성품에 따라 하나됨으로 관련하신다. 각 인격은 서로 안의 관계 안에서 영원히 자기 자신이 되시길 선택하신다. 각 인격은 관계 안에서 성품에 따라 행하신다.
     5. ***Mutual****:* Each Person is equally yoked in mutual love and wholehearted commitment. Each is fully involved, fully focused, and fully committed to each other.  
        **상호성**: 각 인격은 상호적 사랑과 전심으로 헌신된 가운데 동등하게 멍에를 메신다. 각 인격은 서로에게 완전히 관련되어 있고, 온전히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온전히 헌신 하신다.
  4. ***#5. Each Person is different in function and authority in their relationship and work.*#5각 인격은 관계에서의 기능, 권세, 그리고 행함이 다르다.**There is equality in the Godhead, but differences in the way they relate to each other and function   
     or work in the world. Their work includes creation, redemption, and providence (leadership over   
     the nations). The Father’s role is to direct and send. Jesus’ role is to obey, pray, and do the Father’s work. The Spirit’s role is to apply the work of salvation to us and to anoint us for service. These differences in roles are not temporary but will last forever (1 Cor. 15:28).  
     신격 안에서 동등성이 있지만 서로 관계하는 방식과 기능 또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다르다. 그 분들의 일은 창조, 구속, 그리고 섭리 (열방을 다스리는 리더십)를 포함한다. 아버지의 역할은 인도하고 보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역할은 순종하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베푸시고 섬기도록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다. 이 역할들의 다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고전 15:28).
  5. ***#6. Each Person’s work is unified, inseparable, and interdependent on the others’ work.***   
     **#6 각 인격의 일하심은 연합되어 있고, 분리할 수 없으며, 그분들의 일에 상호 의존적이시다.**  
       
     The three Persons are one in purpose and in agreement in all that they do. They are each fully involved with every work of God (creation, the incarnation, the atonement, the resurrection, etc.)   
     세 분은 목적에서 하나이시고 행하시려는 모든 일에 하나로 동의 하신다. 그분들은 각자가 온전하게 창조, 성육신의 일, 구속, 부활 등의 하나님의 일에 관여 하신다.
  6. ***#7. Each Person mutually dwells in the other Persons.***   
     **#7 각 인격은 다른 두 분들 안에 상호 거주하신다**God, as three distinct Persons, is deeply united through their mutual indwelling (Jn. 10:38; 14:10-11, 20; 17:11, 21-23). This explains how three Persons can be one in heart, thought, and action, so that God acts as one and as three.  
     세 분의 구별된 인격으로서 하나님은 상호내주함을 통해 깊이 연합하신다 (요 10:38; 14:10-11, 20; 17:11, 21-23). 이것은 어떻게 세 분이 마음, 생각, 그리고 행동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로, 또 세 분으로 행하시는 지를 설명해준다.

10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The Father who dwells in Me does the works. 11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Jn. 14:10-11)   
10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11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 (요14:10-11)

18The only begotten Son,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declared Him. (Jn. 1:18)   
18 …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13He who came down from heaven, that is, the Son of Man who is in heaven. (Jn. 3:13)   
13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하늘에 계신; 뉴 킹 제임스 버전] 자가 없느니라   
 (요 3:13)

21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may be one in Us… 22The glory which You gave Me I have given them,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23I in them and You in M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24Father, I desire that they whom You gave Me may be with Me where I am, that they may behold My glory… (Jn. 17:21-24)  
21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22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23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24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17:21-24)

**Note:** Some of these notes were influenced by Grudem’s *Systematic Theology*; chapter 14 on the Trinity  
노트: 이 노트의 일부는 그루뎀의 조직 신학의 14강 삼위 일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다.